

익산시, 국제적 위상 강화 힘써

정헌율 시장 - 주한 유럽연합(EU) 페르난데스 대사, 교육·문화 분야 국제 협력 방안 논의

익산시가 국제교류 저변 확대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이 1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대사를 만나 의료·문화 국제교류와 지방교육분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이 1일 주한 유럽연합(EU)대사를 만나 의료·문화 국제교류와 지방교육분권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스 대사는 스페인 출신으로 주말레이시아 EU대사, 유럽 대외관계청(EEAS) 인도·네팔·부탄·방글라데시 부문 국장을 역임했고 2020년 주한 유럽연합(EU)대사로 위촉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페르난데스 대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원광대학교를 찾아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문화유산인 마루

을 중심으로 한 의료 분야 해외연수 추진을 비롯해 유럽과 익산시의 문화 교류에 대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 시장은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을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지정에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안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교육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건의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의 정책과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의 우수한 교육,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청림 익산, 청림시책 추진단 회의' 개최

정헌율 시장 "간부공무원들의 청림 리더 역할 수행 중요"

정헌율 익산시장이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림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림시책 추진단을 진두지휘한다.

익산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청림 도시 구현을 위해 '청림 익산! 청림시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청림 리더인 정헌율 익산 시장이 주관하고 간부공무원이 청림시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고자 구성된 내부협의체다.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돼 청림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공직 사회에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수립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의 중점 과제와 추진체계 등을 공유하고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림도 평가 결과와 각종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부패 발생 상황과 원



4년 청림 익산! 청림시책 추진단 회의 모습. 정헌율 시장이 참석했다.

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취약분야 개선 의지를 다졌다.

종합 추진계획에는 '청림 익산 공공기관 청림도 상위 등급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반부패·청렴 제도 정착화 △부패·청렴 취약분야 발굴·개선 △청렴 문화 공직사회 확산의 3대 추진전략과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농촌 테마관광 상품 10개 운영 · 30% 할인

익산시가 농촌 특화 여행상품 운영과 할인 지원으로 특별한 여름휴가 장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농촌 크리에이티브어(CREATOR) 사업으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테마관광 상품 1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 판매 금액의 30%를 할인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 크리에이티브어(CREATOR)는 농촌관광 운영 주체가 여행사와 협업해 농촌에 특화된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익산시는 지난 4월 선정됐다.

익산시는 관광객들이 농촌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배움, 재미, 휴식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달콤 품 시원 메론과 시(時)의 만남 △산 명! 바람 명! 시간 명! 느낌 여행 △한여름 풀한 힐링여행 △편백 숲 힐링여행 등 10개의 테마관광 상품을 준비했다. 테마관광 상품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 관광객의 익산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윤봉길 의사의 독립 운동 이야기' 전시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은 오는 8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독립기념관 순회 전시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립기념관(관장 함시준)의 협조를 받아 개최하는 순회전시로 윤봉길 의사의 삶과 상하이 홍커우(虹口) 공원에서 의거를 재조명한다.

기념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교육자로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던 윤봉길 의사의 또 다른 모습과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의열투쟁 과정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 자료는 △윤봉길 의사가 직접 저술한 야학 교재인 농민독본(農民讀本) △중국 망명길에 남긴 편지와 유묵 △한인애 국단 선서문과 기념사건 △삼하이 홍커우 의거 직후의 현장 사진 △윤봉길 의거에 대한 외신의 신문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 어청도 반값 여행' 참여자 선착순 모집

'고군산군도를 반값에 즐기자' ... 타지역 방문객 70팀 대상

군산시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군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군산 어청도 반값 여행' 참여자 70팀을 8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산 어청도 반값 여행'은 가족, 단체, 동호회 등 2인 이상이 어청도를 방문 시 관광소비액의 50%를 되돌려주는 행사로 고군산군도와 어청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평일 1박 시 여객운임을 편도 기준 2만 5천원에서 2만원을 할인해주는 행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어청도 반값여행이 어청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확대하고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어청도 반값 여행에 참가하고 싶다

를 선뎠던 '모녀의 하루 in 군산' △3탄 고군산군도 트레킹과 섬 방문을 알리는 '어청도 반값 여행'으로 군산의 매력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어청도 반값여행에 이은 8월의 이벤트로 관광지 선택의 주요 키워드인 맛집을 활용한 '군산맛집 여행(가정)'을 구성중에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태그(#군산관광#군산맛집)가 지속 노출될 수 있도록 시리즈로 이벤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행의 중심지가 될 어청도는 고군산군도의 매력을 그대로 품은 군산에서 제일 먼 거리에 위치한 섬이다. 내부에는 산림이 울창하고 일제강점기인 1912년 축조된 어청도 등대(국가등록문화재 제378호 지정)가 있다. 특히 어청도 노을은 사진작가들에게 '노을 맛집' 명품 출사지로 인정받는 곳이며 흥어찜, 우럭찜, 봉장어구이, 흥합 탕수육, 계장 등 해산물을 먹거리로 가득하다. /군산=이재훈 기자

'즐거운 왕궁보석테마관광지로 모여라'

'나라별 보석 이야기' 전시 · 21m 초대형 미끄럼틀 · 스카이 점프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거움을 누리는 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가 여름철 가족 단위 관광객 맞이에 적극 나선다.

익산역에서 차로 30여 분을 달리면 짙은 녹음이 우거진 산봉우리들과 너른 들녘, 물결이 넘실대는 왕궁저수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옆으로 왕궁보석테마관광지가 조성돼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유일 보석박물관이 시선을 끈다. 프랑스 투브르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보석 여행이 펼쳐진다.

보석박물관은 오는 25일까지 개관 22주년 기념 어린이 특별전 '나라별 보석이야기(아시아 편)'를 진행한다. 사파이어와 터키석, 청금석, 루비 등 원석과 나석 100여 점을 전시해 어린이 방문객이 재미있게 보석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전이다.

이와 함께 금속공예 명인 박해도의 대표작 '거북선' 등 41점이 전시되고 있다. 순은 55kg를 사용해 만든 거북선의 위용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보석박물관 옆으로는 실외 시설인 공동테마공원과 실내 시설 다이노키즈월드가 자리하고 있다.

다이노키즈월드는 익산 보석박물관 일원에 조성된 어린이 실내 놀이 체험 시설이다.

공중 모험 시설인 '스카이트레일·타익스'와 압박 등반 시설 '아트 클라이밍', 전자총을 이용한 '레이저 서바

이별', '인터랙티브 트램펄린' 등 역동적인 시설들이 마련돼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된 다양한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이노키즈월드는 8월 한 달간 공휴일·주말마다 1시간 연장 운영을 실시한다. 평일은 평소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6회차 운영된다. 연장되는 날의 마지막 회차는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다.

또 8월 한 달간 실내시설 이용객을 위한 '숨은 글자 찾기' 놀이와 마몽이 열쇠고리, 미니 선풍기, 문구 세트 등 상품도 준비돼 있다.

실내시설 이용객에게 야외에 있는 초대형 미끄럼틀 중 하나를 1회 무료로 탈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외부에 있는 공동테마공원 놀이터에는 '익산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워'가 운영되고 있다. 관광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슬라이드 타워에는 원통형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최대 22m 높이의 드롭형 슬라이드, 나선형 슬라이드, 스카이 점프가 설치돼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탁 트인 풍경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야간경관은 '빛 그리고 음악과 함께 걸다'라는 주제로 야외 조형물에 빛과 음악 옷을 입혔다.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을 100%로 감면한다.

시는 피해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9월 고지분(7~8월 사용분)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음식물수료, 물 이용 부담금이 모두 10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 등이 해당한다.

익산시 소재 피해시설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해당 소재지의 사용료 요금 이 감면되며,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된다. 상수도과는 피해 가구의 상수도 사용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감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